

프로야구 개막 D-3... 전문가들이 보는 각 팀 전력은?

마운드 탄탄 KIA, 올해도 가을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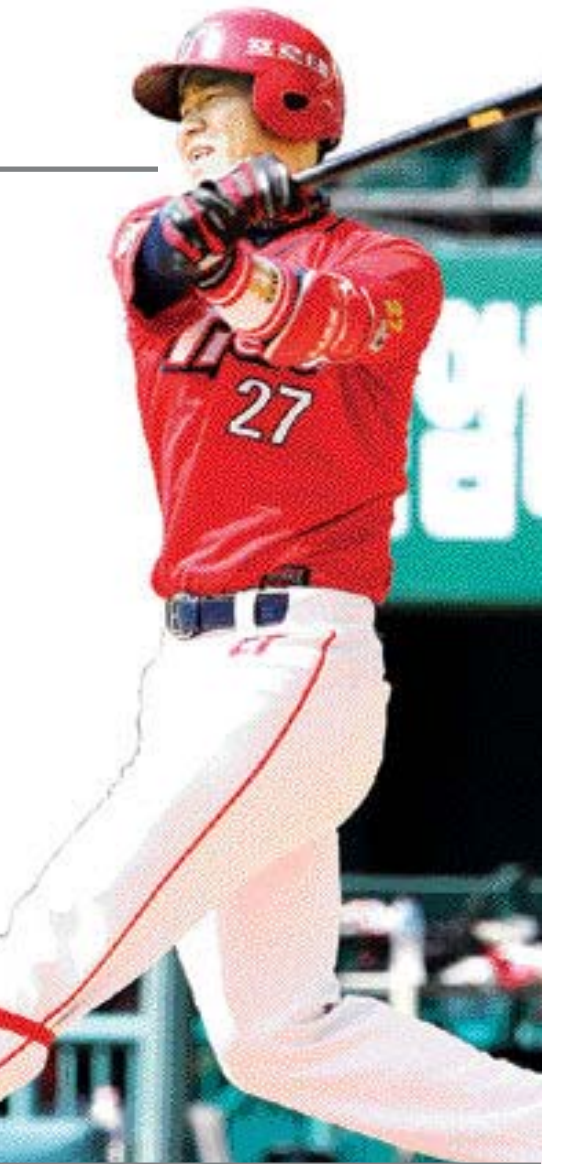
야구 전문가들은 올 시즌 프로야구 정상에 도전할 팀으로 작년 챔피언인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 두산 베어스를 꼽았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삼성 라이온즈도 정상급 실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일성 KBSN 해설위원 = 기존 강팀인 KIA, SK, 두산 3팀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삼성, LG, 롯데가 중위권, 넥센, 한화가 하위권에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투고타자 현상이 예상돼 2~3점 승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계투와 마무리 투수가 두터운 팀이 힘을 발휘하고 공격에서는 기동력이 뛰어난 팀이 유리할 것이다.
KIA는 투수 라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부상으로 돌아간 것이 걸리지만 전반적으로 투수층이 두텁다. 서재응의 부활도 중요하다.

SK·두산·삼성 상위권
LG 선발진 돌풍 예상
넥센·한화 2약 분류
전력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시즌 초반 25경기가 중요하다. 초반에 처지면 따라붙기 어려울 것이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 = 외국인 선수가 아직 혼신을 빚는 구단이 많아 예상 어렵지만 KIA, SK, 두산, 삼성을 4강으로 보고 롯데, LG를 2중, 넥센과 한화를 2약으로 꼽겠다.

특히 올 시즌 상위권 팀 중에서는 삼성을 주목해야 한다. 투수 오승환과 권오준이 부상에서 돌아왔다. 박진만, 진갑용도 몸이 좋아져서 경기를 많이 소화해준다면 우승도 노릴 수 있다.
LG는 투수 박명환과 오카모토 신야에 더해 몇 명의 선수가 마운드에서 잘 해주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김용희 SBS스포츠 해설위원 = KIA, SK, 두산, 삼성이 강팀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LG, 롯데가 중위권에 머물며 넥센과 한화가 전력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KIA는 로드리게스의 대체 용병으로 누구인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김상현이 시범경기 후반에 들어 좋아졌는데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만큼만 한다면 KIA에 큰 힘이 될 것이다.



SK의 조직력은 무탈할 필요가 없고 후보 선수들이 탄탄한 것이 강점이다.
▲이용철 KBS 해설위원 = 삼성과 두산이 2강을 형성하고 KIA, SK, 롯데, LG가 4중을 이루며 넥센과 한화가 2약이다. 삼성은 장원삼이 합류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이전 정리됐고 윤성환, 브랜든 나이트, 장원삼, 프란시스코 크루세타, 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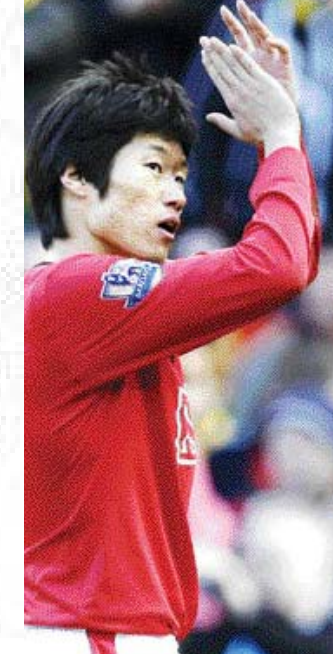
밴쿠버 감동 토리노로...

피겨여신 김연아 세계선수권 출전... "컨디션 이상 없다"

"모든 것을 맞춰보려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22~28일·토리노)에 출전한 '피겨여신' 김연아(20·고려대)가 첫 연습을 마치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연아는 23일(한국시각) 아침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치러진 여자 싱글 공식 연습이 끝나고 나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점프와 스핀 등 모두 확인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리노까지 긴 여행을 하고는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김연아는 유일한 메인 링크에서 연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틈을 내 연습에 참가했다.
아침에 토리노에 도착해 늦은 밤 연습을 할 때까지 김연아는 2~3시간 낮잠을 자는 정도의 휴식밖에 하지 못했다.
김연아는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으려는 듯 가벼운 점프를 주로 뛰며 빙집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지만, 연습 후반부에는 약셀과 살코, 러츠 등

다양한 점프와 콤비네이션 점프 등까지 시도하며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조율했다.
김연아는 "메인 링크에서 연습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맞춰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여러 차례 "성적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밝힌 김연아지만 기본 좋은 기억이 서린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서자 다시 선수로서 욕심이 솟구치는 것도 감추지 않았다.
김연아는 지난 2007년 12월 토리노에서 열린 2007-2008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2연패를 달성했다.
김연아는 "2연패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음을 비우고 경기에 나서겠다"면서도 "과리나 도쿄 등 이번 시즌에는 유독 예전에 1등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경기가 많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로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면서 정신적으로 풀린 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마음을 비울수록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피겨 트리플 점프의 모든 것
트리플 3A: 8.2
트리플 3Lz: 5.0
트리플 3F: 5.5
트리플 3L: 5.0
트리플 3S: 4.5
트리플 3T: 4.0



박지성 EPL 31라운드 '베스트 11'

리버풀을 격찬한 '3월의 사나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하 맨유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베스트11에 뽑혔다. 박지성은 스포츠전문채널 유로스포츠가 23일(이하 한국시각) 발표한 2009-2010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베스트11 격인 '팀오브더라운드'에서 4-5-1 포메이션의 미드필더 한 자리를 꿰찼다.
박지성은 지난 22일 오전(한국시각)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끝난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경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1-1로 맞선 후반 15분 대런 플래처가 차올린 공을 끝문 앞에서 다이빙 헤딩슛으로 꽂아 넣어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유로스포츠에 앞서 전날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도 박지성을 라운드 베스트11로 뽑았다. 특히 유로스포츠는 지난 11일 열린 AC밀린(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 때도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어 맨유의 4-0 대승과 8강 진출에 큰 힘을 보탠 박지성을 베스트11으로 선정했다.

KIA 광주 개막전 30일

선수·팬 그라운드 입장 등 이벤트

KIA 타이거즈는 오는 30일 광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리는 2010시즌 프로야구 삼성과 홈 개막전 때 선수와 팬이 함께 그라운드에 입장하는 이벤트를 갖는다.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팬 중에서 11명을 초청, 선수와 함께 기아자동차를 타고 입장한다.
이 이벤트는 구단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3~25일까지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에서 참가 신청받는다. 이날 선정된 11명에게는 후드티와 모자 등 기념품과 함께 지정석 관망 및 도시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타 구장에서도 개막전 행사는 풍성하다. SK 와이번스는 27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개막전에 앞서 '그린 스포츠'라는 주제의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가 시작되면 양팀 주장과 선수들이 입장하고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개막을 선언한다.
개막 선인 뒤 유영인과 자전기 동호회원 500여 명이 그라운드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 SK의 그린스포츠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차범근 한국축구 40년 '최고 별'

'차별' 차범근 수원 삼성 감독이 지난 40년 한국 축구를 가장 빛낸 '별'로 선정됐다.
국내의 대표적인 축구 월간지 베스트일레븐이 창간 40주년 특집으로 지난 5일부터 열을 동안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공동으로 시행한 '지난 40년 한국 축구를 가장 빛낸 최고의 선수'라는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만6182명)의 절반이 넘는 54.5%(8813명)가 차범근 감독을 꼽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전체 응답자 27.1%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고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11.0%)과 황선홍 부산 아이파크 감독(3.7%), 허정무 대표팀 감독(1.5%)가 뒤를 이었다.

마라도나, 역대 월드컵 최고의 선수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영국의 지명된 일간지 타임지가 발표한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타임지는 마라도나 감독이 '축구황제' 펠레를 2위로 밀어내고 영광의 1위 자리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월드컵 통산 21경기에 출장해 8골을 잡아낸 마라도나 감독은 현역 시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 우승을 안겼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준우승을 이끌었다. 월드컵에서만 세 차례 우승을 맞춘 펠레를 2위로 밀어낸 결과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밖에 또 프란츠 베켄바워 바이에른 뮌헨 명예회장(독일)이 3위에 올랐다.